



회관 건립기금을 기부하는
울릉군 분회장 신창윤(우)과 전기현 회장(좌)



울릉군 분회 회원 견학 기념사진

울릉군 분회 선진지 견학

울릉군 분회가 본 협회 분회결성 후 처음으로 육지의 양봉현장 선진지 견학을 3박4일 동안 실시하였다.

울릉군의 양봉농가와 사육군수는 각 25개, 420군이며 2006년도부터 신창윤 분회장의 주도로 분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과 판로개척,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이번 선진지견학도 신창윤 분회장의 주도로 6월 15일 울릉도를 출발하여 산림과학원, 농촌진흥청 양봉소재과, 본 협 양봉산물연구소, 양봉장(포천 윤화현), (주)꽃샘종합식품 등 각종 가공제품 및 시설을 견학하였다.

특히 6월18일에는 본 협회를 방문하여 전기현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역할과 현재 양봉업계의 현안, 향후 추진방향등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. 또, 양봉산물연구소를 방문하여 손재형 연구소장으로부터 검사과정과 벌꿀에 관한 궁금증도 질의하였다.

질의응답이 끝난 후 전기현 회장은 앞으로 울릉군분회가 더 발전하기위해서는 신창윤 분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결 된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하고 금년 10월 전북 고창에서 개최되는 '전국 양봉인의 날' 행사에 꼭 참석하여 전국 회원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.